

로보틱스

Analyst 박찬솔 rightsearch@sks.co.kr / 3773-9955

SK증권 리서치센터

2025년 로보틱스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

- 삼성전자,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추가로 2,674억원 투입하면서 지분을 35.0%. 2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서
- 이번 계기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국내 증시 로보틱스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
- 2025년 로보틱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전방 분야는 조선/방산(산업재)과 B2C 서비스

2024년 마지막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최대주주가 기존 오준호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서 삼성전자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했으며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.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23년 1월 590억 원을 처음 투자하면서 지분 10.2%, 23년 3월 278억원 투자로 14.7%, 24년 12월 콜옵션 행사(추가 2,674억원 투입)로 35.0%까지 지분을 확대.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6,789,950주(지분율 35%) 를 보유하게 되며, 콜옵션 물량 4,581,865까지 전량 행사를 가정 시 약 60%까지도 지분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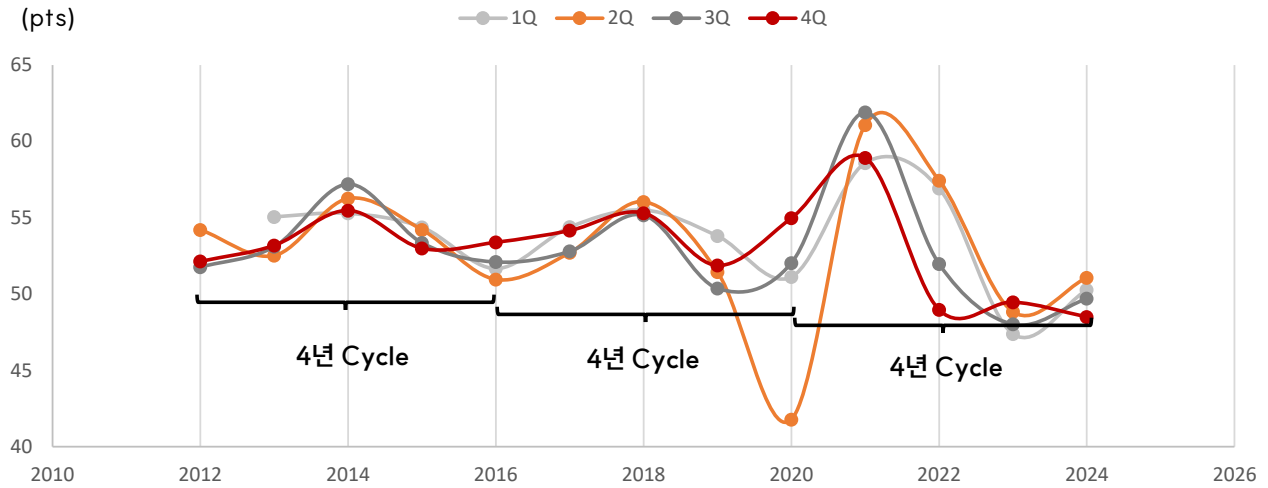
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 '휴보'를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동로봇/양팔로봇/자율이동로봇 성장 가능성에 주목. 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첨단 휴머노이드 개발 지원 예상. 삼성전자 DX 부문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고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(지분 매각 후 지분율 7.8%)가 단장에 취임할 계획.

국내 로봇 산업이 대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지분 확대 및 최대주주 변경 건이 로보틱스 산업의 사기를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. 국내 로봇산업에 투자해온 대표기업들은 한화/삼성/LG/LIG넥스원/현대/두산 등. 이번 계기로 시장에서 기업들의 로봇 기업 M&A나 추가 지분 투자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. 신성장 분야에서는 생태계가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점에 2025년 업계의 중요한 투자 타이밍이 될 것.

2025년 로보틱스 적용의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은 조선 + 방산(산업재 섹터). 조선의 경우 덴마크 Universal Robots, **레인보우로보틱스**, **뉴로메카** 등이 HD현대삼호 납품 이력이 있고 HD 조선 계열사가 협동 로봇 도입 확대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. 방산의 경우 **레인보우로보틱스**, **LIG넥스원**의 **고스트로보틱스**, **에스비비테크** 등이 방산업체에 납품 이력 있어. 서비스 로봇 분야도 확대가 예상되는데, 비록 지금은 전체 로봇 산업 규모면에서 열위에 있지만, Tesla가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 시장이 기존 전망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. 특히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,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. 국내 중소형주 중에서는 **로보티즈**가 LG전자/LH/카카오 등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분야가 고성장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며, **씨메스**도 물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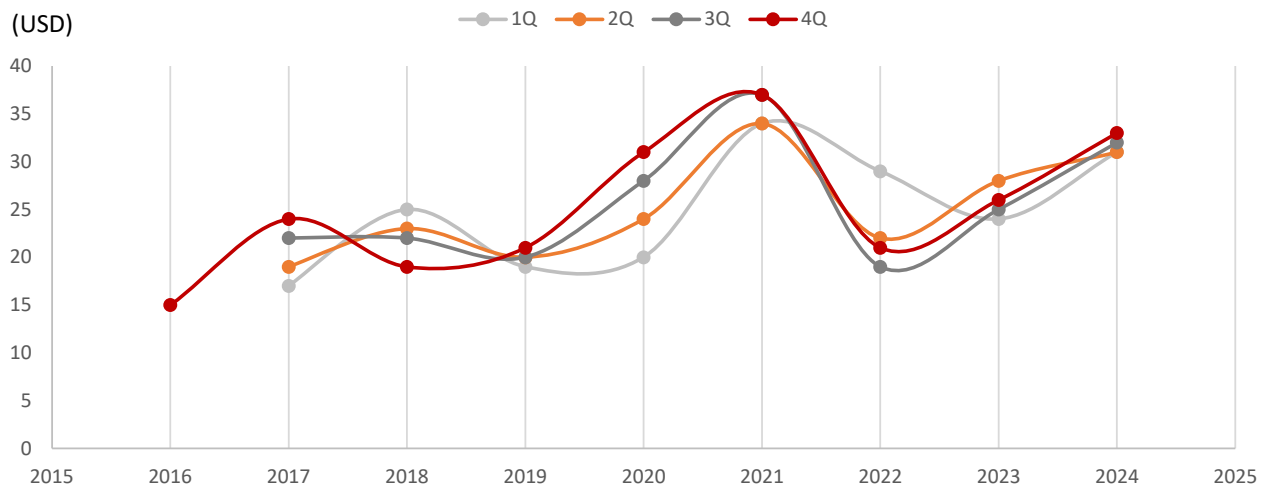
2025년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BIAS가 필요. 로보틱스 분야는 글로벌 주요 제조국들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성장이 필연적임. 특히 글로벌 제조업 PMI가 미국 제조업 PMI와 궤를 같이 하고, 미국 제조업 PMI 는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에 경기 확장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국내 제조 대기업들의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해이기 때문.

미국 제조업 PMI 지표는 4년 사이클 - 미국 대통령 취임 첫번째 해(2025년)에 정책 불확실성 제거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

자료 : S&P Global, SK증권

Global X Robotics & Artificial Intelligence ETF 분기별 평균 가격(달러)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